

한국뇌은행 협력 네트워크(KBBN)

증가하는 퇴행성 뇌 질환 연구 필요에 따라 국가 지정 뇌 연구 거점 기관인 한국뇌은행이 2014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뇌은행은 뇌 조직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 주요 병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병원에 거점 뇌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한국뇌은행 지정 네트워크 병원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후 뇌 기증을 통한 퇴행성 뇌 질환 연구에 힘쓰고자 합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은행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1층 뇌신경센터 신경과 | 연락처 : 053-200-2582, 3278

한국뇌은행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신서동 1142-1번지) | 연락처 : 053-980-8521 ~ 3

36.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KNUMC 뇌은행 BRAIN BANK

사후 뇌 기증은

다음 세대의 뇌 건강을 위한
고귀한 나눔 실천입니다.

많은 뇌 질환은 현재까지 진단이 까다롭고, 치료, 예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뇌 질환은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질환이 오래 지속 되면서 고생하는 환자들 많이 있고 있지만, 많은 뇌 질환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사후 뇌 기증을 통한 뇌 질환 연구로 퇴행성 뇌 질환에 관련된 이상 단백질과 이들의 특성에 대한 사실들을 밝히고 이들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나눔 실천으로 다음 세대에는 뇌 질환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후 뇌 기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은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후 뇌 기증, 왜 필요한가?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뇌 질환은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뇌 질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행성 뇌 질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평생 자유자재로 다루던 자신의 몸을 차츰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퇴행성 뇌 질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뇌 기증을 통한 뇌 질환 연구로 우리나라 뇌 건강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뇌, 다음 세대의 뇌 건강을 책임진다.

많은 뇌 질환은 현재까지 진단이 까다롭고, 치료, 예방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질환에 관련된 이상 단백질과 이들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들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질환에 특별한 이상 단백질을 측정하여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퇴행성 뇌 질환의 치료기법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정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뇌 기증 희망 신청 절차

상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가 전화 혹은 직접 찾아 뵙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Tel. (053) 200-2582, 3278 / Email : knumcbb@naver.com

동의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필요사항을 기증자 본인이 동의서에 기입해주세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기증

기증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이 사무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유족의 동의를 확인한 후에 시신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기게 되며, 전문 의료진에 의해 부검 및 뇌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부검이 이루어진 경우, 본원 장례식장에 안치됩니다. 다른 장례식장으로 안치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송을 지원해드립니다.

36.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KNUMC 뇌은행 BRAIN BANK